

‘신한:KB’ 리딩뱅크 戰... ‘하나:우리’ 박빙 3위 경쟁

금융지주 ‘어닝시즌’ 돌입

신한지주, 오렌지라이프 인수 효과
연간 순이익 추정치 3.4兆 달해

KB금융, 전년동기비 14.1% 줄어

오는 19일 하나금융지주를 시작으로 금융지주사가 어닝시즌(실적발표기간)에 돌입한다.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가 각각 24, 25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며, 지주사로 전환한 우리금융지주도 오는 26일 첫 성적표를 내놓는다.

이번에도 관전 포인트는 ‘리딩뱅크’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다. 신한지주가 KB금융을 앞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격차는 크지 않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의 3위 다툼도 치열하다. 증권가 실적 추정치로는 한

〈금융지주 1분기 및 연간 실적 추정치〉

구분	1분기 순이익	2019년 순이익
신한	9,070	34,918
KB	8,315	33,480
하나	5,560	24,105
우리	5,445	20,264

(단위: 억원)

/자료=에프앤가이드



나금융이 소폭 앞섰지만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다.

◆신한 vs KB, ‘리딩뱅크’는 누가

16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신한지주의 1분기 순이익 추정치는 9070억원으로 KB금융 8315억원을 755억원 차이로 앞선다.

신한지주는 오렌지라이프의 인수 효과가 본격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베스트투자증권 박해진 연구원은 “신한지주는 1분기에 일회성 비용요인이 없는데다 인수를 완료한 오렌지라이프의 이익 400억원 가량이 반영될 것”이라며 “자산성장률도 금융지주 4개사 중에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전년 동기 대비로는 순이익이 14.1%나 줄었다. 기저효과가 컸다.

DB금융투자 이병건 연구원은 “KB금융의 경우 작년 1분기에는 1100억원 규모의 명동 구사옥 매각이익이 있었고, KB손보도 이례적으로 실적이 좋았다. 주식시장 활황으로 은행신탁 및 증권 수수료가 많이 계상된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신한지주가 리딩뱅크 자리를 차지할 전망이다. 신한지주와 KB금융의 올해 순이익 추정치는 각각 3조4918억원, 3조3480억원이다.

◆하나 vs 우리, 3위 경쟁도 치열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의 1분기 순이익 추정치는 각각 5560억원, 5445억원이다. 격차가 115억원에 불과하다.

하나금융은 일회성 비용이다소 발생했다.

DB금융투자 이 연구원은 “하나금융은 임금피크제 관련 조기퇴직비용 1200억원과 환율하락에 따른 환손실이 400억원 가량 반영될 것”이라며 “일회

성 비용을 제외한 핵심지표의 흐름은 견조하다”고 밝혔다.

보통 희망퇴직비용이 3분기에 반영됐던 것을 감안하면 선제적 비용반영으로도 연간 실적은 우리금융을 확실하게 따돌릴 수 있다. 실제 연간 기준으로 하나금융의 순이익 추정치는 2조4105억원으로 우리금융(2조264억원)을 크게 웃돈다.

우리금융은 회계기준 변경 효과로 실적 추정을 밀릴 가능성도 있다.

이 연구원은 “우리금융의 경우 겉보기로는 순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은행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380억원 수준의 신종자본증권의 회계 처리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며 “전환과정에서 신종자본증권이 모두 은행에 남게 되면서 은행일 때는 지배주주 순이익에 포함됐던 신종자본증권 관련 비용이 지주회사 차원에서는 비지배주주 순이익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기회의 땅 베트남, 투자는 이렇게”

우리은행, 투자 세미나 24일 개최

우리은행은 오는 24일 서울 중구 본점 4층 비전홀에서 베트남 투자 세미나를 실시한다.

이번 세미나는 ‘기회의 땅 베트남! 성공 투자 전략’이란 주제로 진행된다. ▲베트남 경제 현황 소개와 미래에 대한 전망 ▲베트남 금융 투자 전략 ▲베트남 부동산 투자 가이드 등 3가지 주제로 열리고, 베트남 투자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세미나는 선착순 200명 대상이며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1부에서는 베트남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해 임흥재 전 베트남 대사가 현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하고, 2부에서는 베트남 경제상황과 베트남 펀드 투자에 대해 이대원 한국투자신탁운용팀장이 ‘베트남 우량 주식을 사는 포트폴리오 투자법’을, 김태운 우리은행 세무사가 ‘해외에서 찾는 절세 포인트’를 설명한다. 3부에서는 박상욱 우리은행 해외부동산팀장이 ‘해외부동산투자신고 핵심 가이드’, 썬영 베트남 키텐드



대표가 ‘베트남 현지 부동산 시장 투자 유의사항’을 소개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베트남 투자에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 베트남 펀드 투자, 베트남 부동산 투자 등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특히 해외부동산 투자 신고 절차와 세금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 베트남 투자에 대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민영 기자 hong93@

은행부실 ...신규 연체·中企 대출 ‘비상’

올 연체율 상승세, 中企가 주도
신용대출 연체율도 ‘쭉쭉’ 늘어

경기부진에 연체 규모가 눈에 띄게 늘면서 은행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가계대출 억제정책에 따라 은행들이 앞다퉀 늘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상승폭이 커지며 부메랑이 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신규 연체채권 규모는 1조7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은 물론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2016년 말 이후로는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4월 신규 연체채권 규모가 3조5000억원에 달했지만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른 연체채권 2조2000억원을 제외하면 1조3000억원 수준이었다.

NH농협은행 현장체험 ‘허그팜 금융교육’

NH농협은행은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와 함께 금융교육도 받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는 ‘허그팜(Hug Farm) 금융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허그팜 금융교육은 전국 13개(서울, 강원,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금융교육센터에서 유치원생(6~7세)과 초등학생(1~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일일 은행원이 되어 통장을 개설하는 등의 금융업무 체험하고, 핀테크를 활용한 소액결제 시스템으로 우리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는 경험도 제공한다.

농협은행은 2012년부터 행복채움금융교실을 운영해 왔으며, 학생들과 소외계층 등에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제공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은 “연체채권 정리금액을 반영한 실질연체 순증률은 0.10%로 전월과 같은 수준이지만 신규 연체 금액은 2017년 들어 가장 많다”며 “전반적인 경기 부진으로 대출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0.52%로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연체규모가 늘어나는 추이로 보면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특히 은행들이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과 맞물려 급격하게 늘린 중소기업 대출이 뇌관이다. 올해 들어 이어진 연체율 상승세는 중소기업이 주도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달까지 중소기업 대출은 12조2771억원이 늘었다. 같은 기간 대기업 대출은 8385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0.49%에서 올해 1월 말 0.57%, 2월 말

0.66%로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가계대출에서는 신용대출의 연체율이 들쭉이고 있다.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0.43%에서 올해 1월 말 0.48%, 2월 말 0.56%로 상승했다.

은행이 대출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높은 신용대출에 대한 채무 상환 압박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 연구원은 “신규연체 규모가 아직까지 큰 부담을 주지는 않겠지만 당분간 중요한 지표로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며 “제2금융권이 오는 6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기 시작하는 데다 하반기 주택가격 조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가계 채무재조정이 활성화될 경우 연체율 상승폭은 보다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오늘부터 인하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17일부터 주요 은행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은행연합회는 17일부터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이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도 적용된다. 다만 구체적인 인하는 은행마다 다르므로 거래 은행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통상 대출 직후에 상환액의 1.5%, 1년 후 1.0%, 2년 후 0.

5%이고, 3년 경과 시점에서 사라진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조치로 수수료가 담보대출(가계·기업 동일)은 0.2%포인트, 신용대출은 0.1%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도 시스템을 정비해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라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정비로 금융 소비자의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하는 등 2016년부터 3년 연속 금융감독원 ‘1사1교 금융교육 우수 금융회사’에 선정된 바 있다.

이대훈 행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교육현장을 제공해 뜻깊다”며 “앞으로도 금융과 우리 농산물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교육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IBK기업은행

마포3기 혁신창업 모집

IBK기업은행이 마포 3기 혁신창업 기업을 모집한다.

IBK창공은 창업기업이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투·융자, 컨설팅, 사무공간 등의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업은행의 창업육성 플랫폼이다.

모집대상은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으로 1차 서면평가와 2차 PT평가를 통해 총 20개 기업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육성기간은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간이며 기업은행은 공유오피스 형태의 사무공간, 액셀러레이터 엔피프팅과 연계한 1대1 멘토링, 투자유치를 위한 데모데이,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나유리 기자